

문화

행복한 책임기

지적의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999년 위소스키 형제가 만든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빨간 알약을 먹고 다른 현실을 본다. 불에 탄 잔해만 있는 황량한 풍경, 세계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시카고의 모습이다. 저항군 지도자 모피어스는 아이러니한 인사를 건넨다.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종차별은 출신과 피부색이 아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이다. 지적은 '9·11 사태'의 원인이 미국의 '권력 결여'가 아닌 '물질 과잉'이라고 한다. 주변으로 몰려난 호모 사케르의 반란이다.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라

상의 현실인 매트릭스(대타자)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것이 메커니즘의 수수께끼다. 매트릭스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인간의 향락을 지양분으로 삼기 때문이다. 인간이 격렬한 쾌감을 느낄 때만 그것이 신적 에너지가 되었건, 경제적인 재화가 되었건 축적할 때가 아니라 항상 소모할 때까지 않은가.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주었다. 한편에서는 강제수용소와 난민 수용소에 원조를 베풀었다. '인간적인 얼굴'을 하고 선심 쓰는 척 이들을 보살폈다. 그것은 가진 자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면서 이들의 온전한 인간성을 서서히 박탈하는 일종의 '길들이기'였다.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

백화점 갤러리들 수준높은 전시 고품격 문화 제공

신세계, 1층광장 전체 활용 '마릴린, 포에버'전 롯데, 친숙한 작품 한자리에 '... POP ART'전

백화점 갤러리는 자연스럽게 손님을 끌어들이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품격 문화 예술 활동을 제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백화점들의 대표적인 미술 마케팅 공간이다.

시장으로 기획, 활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서다. 물론, 관람료도 없고 도슨트 전시 설명 서비스도 이뤄진다.



롯데갤러리 광주점이 다음달 7일까지 여는 'The great of POP ART'전에서 선보이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두 개의 그림-데구드'

롯데갤러리 광주점 제공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22일까지 여는 '마릴린, 포에버'(Marilyn, Forever)전 전경. 마릴린 먼로의 사랑 50주기를 맞아 마련한 전시회에는 먼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들로 채워졌다.

분명 쇼핑 왔는데 발걸음은 갤러리로...

전은 지난 1월 마련한 '에두아르도 칠리다'전을 잇는 국제 기획 전시다. 마릴린 먼로의 사랑 50주기를 맞아 마련한 것으로, 전시장은 먼로의 목소리가 오래된 LP판을 통해 흘러나오며 먼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로 가득하다.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 촬영 현장에서 찍은 누드의 먼로 사진 등은 관람객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1층 광장을 전시장으로 활용, 작가들의 설치 작품으로 채운 '크게 보기 작게 보기'전을 기획하기도 했다.

어들이고 있다. 우선,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The great of POP ART'전은 친숙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달렸던 키스 해링 등 팝아트작가 5명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달에는 비틀즈 탄생 50주년을 맞아 '비틀즈 50년, 한국의 비틀즈 마니아'전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가 하면,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미술을 들여다보는 '매직 리얼리즘-라틴아메리카 현대미술전(6월), 5·18 광주민중항쟁 32주년을 맞아 추진했던 '희망을 춤추다 - 고암 이용노'전(5월) 등 매일 굵직한 전시를 마련해 오고 있다.

아픔없는 세상을 위한 노래 함께 불러요

목포 공생원에서 아이들이 돌봐온 윤학자(일본명 다우치 치즈코 1912~1968) 여사는 '한국 고아의 날' 제정 추진 선대회(31일 목포시민체육센터) 등을 개최한다.

이번에 출연하는 음악인 가운데 최고령인 주금자씨 역시 공생원과 인연이 깊다. 수선화합창단의 1대 지휘자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고 일본 공연도 진행했었다. 소프라노 박계씨 역시 오랫동안 제단과 인연을 맺고 기부를 해왔었다.

이상은 강윤숙씨가 피아노 반주를 맡은 이번 음악회에는 또 소프라노 김선희·임현진·조민영,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김도연씨 등이 출연해 '고향의 노래' '동심초', '그리운 고향' 등 가곡과 '라 보엠' 중 '뮤제타의 왈츠' 등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서 눈에 띄는 출연자는 김희연양 등 7명의 어린이들이다. 음악교사였던 윤학자 여사는 생전에 꼭 '사운드 오브 뮤직'을 무대에 올려

보고 싶어했다. 아이들은 이날 무대에서 '도레미송' 등 '사운드 오브 뮤직' 삽입곡을 부른다. 이번 음악회는 오는 12월 15일 교로 '고향의 집'에서도 진행되며 오사카 공연도 추진중이다. 고향의 집은 재일동포 노인들과 일본 노인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윤기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이 오사카·교베에 이어 세번째로 문을 연 공간이다. 티켓가격 5만원~1만원. 문의 010-4642-1159.



주금자 박계 김미옥

고아의 날 제정 기념 마련 '어울림 음악회'

12일 문예회관·15일 교로 '고향의 집'

김미옥씨 기획- 어린이 7명 '도레미송' 들려줘

이상은 강윤숙씨가 피아노 반주를 맡은 이번 음악회에는 또 소프라노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이태리가구

40% OFF

www.hong79.com(홍천구닷컴)



10월 25일까지 동구청앞

1899-0240

모던가구

11월판매 40% 예약판매 다른가구는 절대 못 보십니다.

홍스페이스가 30년만에 모던가구를 처음으로 선보입니다.